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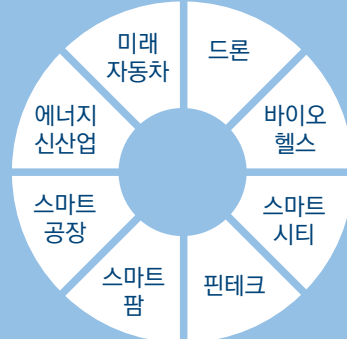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양성, 8대 선도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을 산업연관표의 산업 부문과 연계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인재양성,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데이터·AI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재정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생산,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정부의 재정 투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분야별 국제경쟁력과 민간·정부의 역할 분담, 기후변화 등 환경에의 영향, 그 외 국내외 제반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I.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

3대 전략투자 및 혁신인재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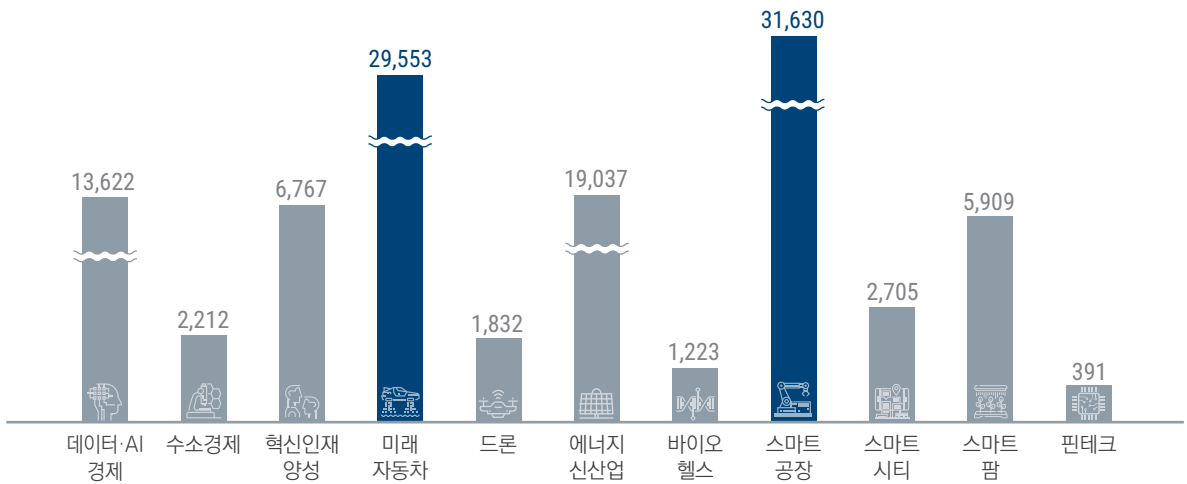
8대 선도사업



II.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의 재정 투입 현황

2018~2020년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에 총 11조 4,886억 원이 투입되는데, 스마트공장(3조 1,630억 원), 미래자동차(2조 9,553억 원) 등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남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별 재정 투입액(2018~2020년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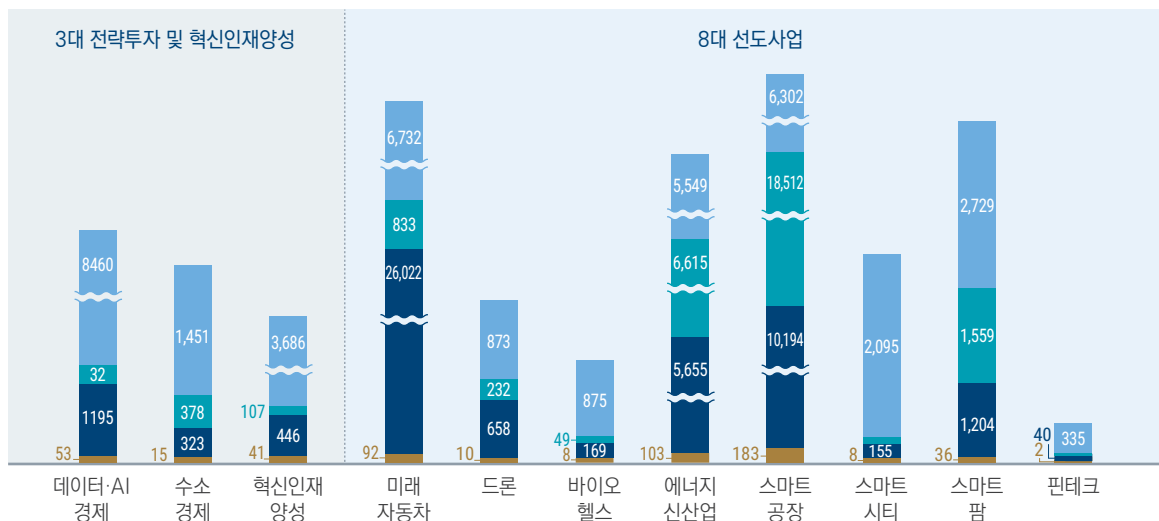
III.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생산유발효과

2018년도 사업의 효과 4조 697억 원, 2019년 사업의 효과 8조 3,319억 원, 2020년 사업의 효과 11조 4,358억 원 등 총 23조 8,37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분야가 7조 3,050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혁신성장 전략투자(2020년) 세부 분야별 생산유발효과(억원)

■ 농림어업 및 광업 ■ 제조업 ■ 전력가스 수도 및 건설 ■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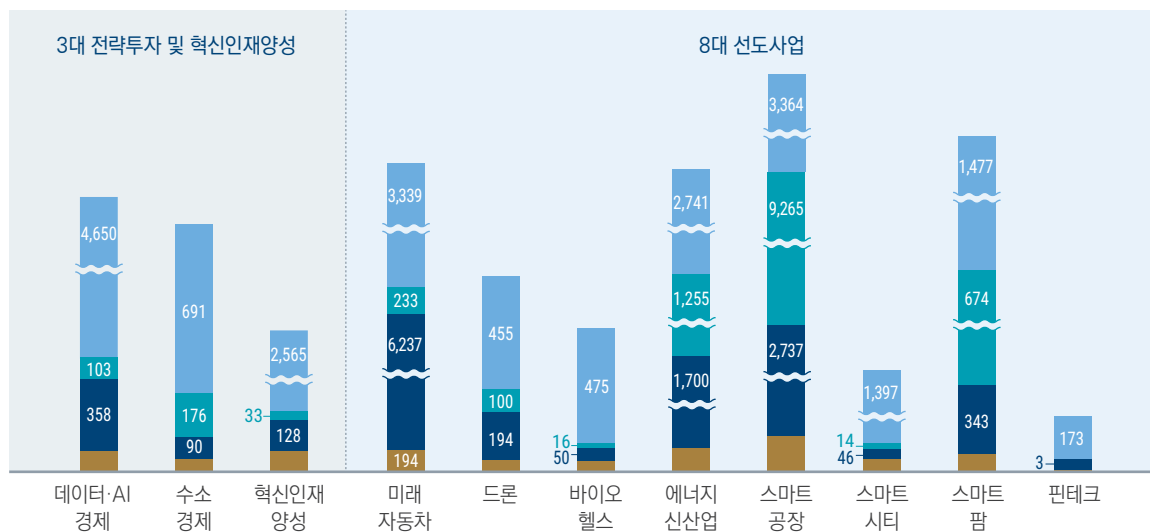


2. 부가가치유발효과

2018년도 사업의 효과 1조 5,704억 원, 2019년 사업의 효과 3조 2,421억 원, 2020년 사업의 효과 4조 5,370억 원 등 총 9조 3,49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스마트공장 분야가 2조 6,808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혁신성장 전략투자(2020년) 세부 분야별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 농림어업 및 광업 ■ 제조업 ■ 전력가스 수도 및 건설 ■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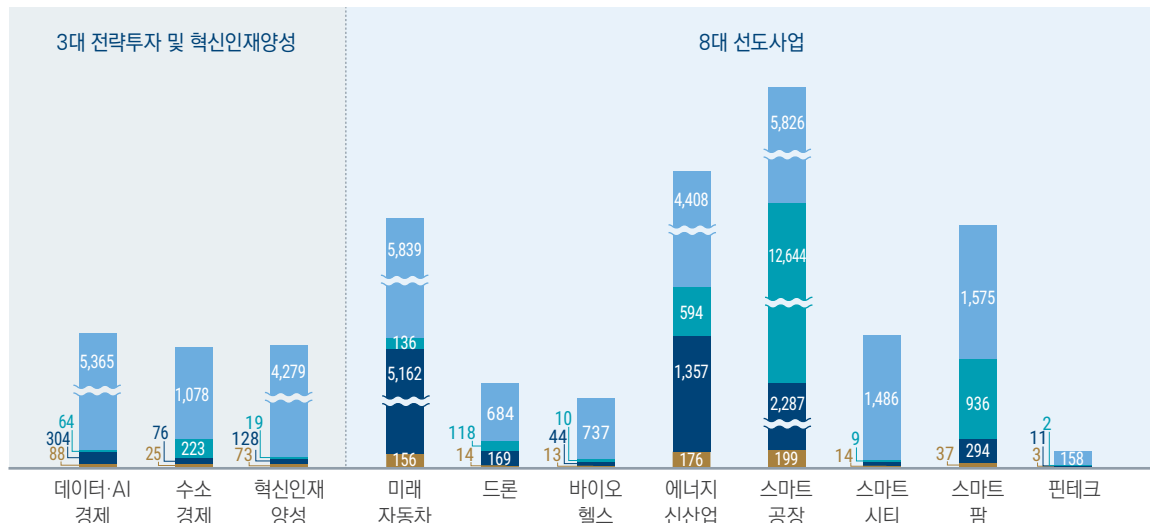


3. 취업유발효과

연도별로 2018년도 사업의 효과 1만 9,729명, 2019년 사업의 효과 4만 425명, 2020년 사업의 효과 5만 6,861명 등 총 11만 7,01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 가운데, 스마트공장이 3만 6,341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혁신성장 전략투자(2020년) 세부 분야별 취업유발효과 (역원)

■ 농림어업 및 광업 ■ 제조업 ■ 전력가스 수도 및 건설 ■ 서비스업



IV. 시사점 및 해석상의 유의사항

혁신성장 전략투자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세부 분야별 단위당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단위당 생산유발효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단위당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상위 6개 분야에서
 혁신인재양성,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수소경제, 데이터·AI경제 등 5개 분야 일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1	미래자동차	2.50	혁신인재양성	0.93	혁신인재양성	15.24
2	에너지신산업	2.41	스마트시티	0.90	바이오헬스	12.88
3	수소경제	1.94	바이오헬스	0.87	수소경제	12.55
4	스마트공장	1.93	수소경제	0.86	스마트공장	11.49
5	스마트 팜	1.85	데이터·AI 경제	0.86	드론	10.28
6	드론	1.85	스마트공장	0.85	데이터·AI 경제	9.78
7	바이오헬스	1.77	스마트 팜	0.84	스마트시티	9.54
8	핀테크	1.72	핀테크	0.84	스마트 팜	9.54
9	데이터·AI 경제	1.69	드론	0.79	에너지신산업	8.79
10	혁신인재양성	1.45	에너지신산업	0.77	미래자동차	8.38
11	스마트시티	1.42	미래자동차	0.73	핀테크	7.73

※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재정 투입 1원 당 파급효과(원)을 의미하고,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파급효과(명)을 의미함.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른 분야별 직·간접적인 고용(취업), 부가가치(소득) 및 생산(산출) 유발효과 비교·분석 결과는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분야별 국제경쟁력과 민간·정부의 역할 분담, 기후변화 등 환경에의 영향, 그 외 국내외 제반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산업연관분석은 정부 정책·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산업별 투입계수가 생산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하고 상대가격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며 공급 제약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안들 간의 상대적 효과 비교에 보다 유용

혁신성장 전략투자 사업의 성격이 여러 산업에 걸쳐 있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산업연관표 기본부문과 명확히 연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